

韓國淨土圖의 圖說考

洪潤植

아니면 그와같은 信仰으로 끌기 위한 教化的 意味를 갖고 그려졌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本稿에서의 問題의 所在은 以上과 같은 淨土圖가 어떤 教學思想에 依해 圖說化 되어졌으며 그 信仰의 性格은 어떤 것인가를 살피고 나아가 淨土圖가 韓國佛圖에서 차지하는 位置는 어떤 것인가를 究明하고자 하는 것이다.

二、淨土의 信仰의 受容

元曉는 여러 教學思想에 두루 通達하여 韓國佛敎에 있어 圓融思想의 體系를 形成 하였으나 衆生救濟를 爲한 宗教活動을 함에 있어서는 淨土 信仰에 깊은 關心을 갖지 않았을 수 없었으며 新羅華嚴思想家의 巨星인 義湘도 思想의 面에서는 華嚴思想을 第一義로 삼았으나 大衆救濟를 爲해서는 阿彌陀淨土信仰에 接近하지 않았을 수 없었음은 疑無疑인 까①. 여기서 淨土思想의 信仰의 受容은 어떻게 展開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問題視 되는 것이다.

韓國佛敎를 信仰의 面에서 보면 淨土信仰처럼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信仰形態도 그리 흔하지 않았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即 어떤 教學思想에도 不拘하고 信仰의 面에서는 淨土信仰을 外面할 수 없었음을 歷代 大乘思想家들의 行狀에서 살필 수 있게 되는바 元曉 義湘이 그러하였고 惠宿 惠空이 그러하였다. 뿐만 아니라 曹溪禪의 主軸을 이룬 普照와 西山에 있어서도 비록 自性彌陀를 主張하기는 하였으나 禪淨融合의 길을 모색하지 않았을 수 없었음은 注目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韓國佛敎의 信仰儀禮를 보면 淨土信仰에 立脚한 念佛儀禮를 除外하면 儀式 儀禮의 核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儀禮의 構造面에 淨土 信仰은 깊숙히 파고 들고 있다.

이와같은 事實은 韓國佛敎의 圖說에 淨土圖가 많이 그려진다는데 歸着되어진다. 왜냐하면 韓國寺院傳來의 佛畫는 信仰의 內容을 그리거나

淨土란 穢土에 對한 概念으로 大乘佛敎의 佛國土를 일러 말하는 것이다. 即 小乘佛敎에서는 苦惱에서 解脫함을 最高의 境地로 삼으나 大乘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佛國土의 建設을 目標로 修行하고 그렇게 하여 佛國土 即 淨土가 建設되면 그곳에 迷한 衆生을 往生시키는 活動을 계속함을 理想으로 한다. 여기서 衆生의 淨土往生信仰이 싹트기 始作하고 그와같은 大乘思想이 發展함에 따라 보다 많은 佛國土의 建設을 이룩하게 되니 藥師如來의 瑠璃淨土 釋迦如來의 釋迦淨土 阿彌陀如來의 阿彌陀淨土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一般的으로 淨土라고 하면 阿彌陀의 極樂淨土를 생각하게 되고 따라서 淨土信仰하면 阿彌陀의 信仰을 指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또한 淨土信仰하면 阿彌陀의 淨土信仰을 생각하게 되는 것일까

이는 말할 것도 없이 阿彌陀淨土信仰이 그만큼 一般大衆에게 親近感을

一、序 言

- 一、序 言
- 二、淨土의 信仰의 受容
- 三、韓國佛畫의 淨土圖說
- 四、韓國淨土圖의 內容과 性格
- 五、結 論

줄수 있는 信仰의 構造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大體로 一般大衆에게 쉽게 理解 되어지는 淨土信仰은 他力信仰으로서의 性格과 念佛儀禮에 依한 易行信仰의 性格에서 그 特徵을 찾아볼수 있다.

이와 같은 淨土信仰의 特徵이 出家者 中心의 佛敎에서는 批判의 對象이 되고 이를 克服하려는 努力이 韓國佛敎思想의 重要한 課題가 되었음은 事實이나 ② 한편 생각하면 이는 禪宗의 立場에서 생각한 念佛觀일 뿐 ③ 大衆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있는 淨土信仰의 根柢는 잘 理解 되지 않았던것이 아닌가한다. 여기서 韓國淨土信仰의 論議를 하고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그 信仰의 推移가 어떤것이었던가를 살펴 볼 따름이다. 오늘날 韓國의 寺院에 傳來하는 佛畫를 보면 淨土의 光景을 圖說化한 것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卽 極樂殿(彌陀殿)의 後佛幀畫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한 큰 寺刹이면 거의 懸掛하고 있는 靈壇幀畫(甘露幀畫)는 地獄의 光景과 對比하여 같은 畫面에 極樂의 光景을 묘사하고 있으며 또한 極樂九品圖等을 들수 있는것이다. 이같은 淨土의 圖說內容을



圖. 一 威鳳寺後佛彌陀幀畫

자세히 살펴보면 韓國佛敎의 淨土信仰儀禮와 直結 되는것이어서 興味를 끌게한다. 卽 이같은 淨土圖는 韓國淨土信仰의 보다 具體的 形態를 表出하고 있는것이라 할수 있다는 것이다. 以下에서 韓國淨土圖의 內容과 性格을 살펴보기로 한다.

三、韓國佛畫의 淨土圖說

淨土의 圖說은 淨土의 光景을 描寫한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淨土의 光景은 所謂 淨土三部經이라고하는 無量壽經 觀無量壽經 阿彌陀經등에 具體的으로 叙述되어 있는데 이를 圖說化 한것이 淨土圖이다. 大體로 보면 阿彌陀의 淨土를 西方極樂世界라 하고 그와같은 極樂世



圖. 二 鳳停寺極樂殿 後佛幀畫



圖. 四 河東 雙磎寺 彌陀幀畫



圖. 三 泉隱寺極樂殿 彌陀幀畫

界에 언체나 阿彌陀如來가 說法하고 있다. 이와같이 阿彌陀如來가 西方 極樂世界에서 說法하고 있는 光景을 圖說化하고 있는 것이 極樂殿 或은 無量壽殿 彌陀殿의 後佛幀畫이다. 阿彌陀後佛幀畫의 構圖를 보면 다음 과 같은 몇가지 類型을 살필수 있게 된다. 첫째 阿彌陀如來와 그 左右 補處인 觀世音菩薩 大勢至菩薩만을 그리는 경우(無爲寺極樂殿 後佛壁畫 威鳳寺 三佛(圖一) 後佛幀畫 鳳停寺極樂殿 後佛幀畫(圖二)) 둘째 主 佛인 阿彌陀如來와 그 左右補處인 觀世音 勢至 以外에 二菩薩 四菩薩 六 菩薩등의 여러 菩薩像과 四天王 그리고 聲聞衆을 그리는 경우(泉隱寺極 樂殿 後佛幀畫(圖三) 直指寺大雄殿 彌陀後佛幀畫) 셋째 둘째의 樣式에 極樂의 來迎圖와 보다 많은 極樂의 聖衆을 描寫하는 경우(河東 雙溪寺 彌陀幀畫)이다(圖四). 이와같은 圖說의 內容을 淨土三部經에서 그 根據 를 찾아보면

(1) 「從是西方 過十萬億佛土其土有佛 號阿彌陀 今現在說法 舍利弗 彼 土何故 名爲極樂 其國衆生 無有衆苦 但受諸樂 故名極樂」④

이는 何彌陀의 淨土가 十萬億佛土를 지난 西方에 있으며 그 淨土에는 現今도 阿彌陀如來가 說法하고 있고 그 淨土에는 衆生の 苦惱가 없고 단지 즐거움만 있으므로 極樂이라 한다는 것이다.

(2) 知是觀世音 知是大勢至 此二菩薩 助阿彌陀佛 普化一切 是爲難想 觀名第十三觀⑤

이는 觀世音 大勢至의 兩大菩薩이 極樂淨土에 있어 阿彌陀如來의 補 助菩薩임을 밝히고 있는것이라 하겠다.

(3) 彼佛初會聲聞衆數 不可稱計 菩薩亦然彌陀의 說法場에는 無數한 聲聞과 菩薩이 參與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⑥.

(4) 若彼國土 無須彌山 其四天王及忉利天 依何而住 佛語阿難 第三祇 天乃至色究竟天 皆依何住 阿難白佛 行業果報 不可思議 佛語阿難 行業 果報 不可思議 諸佛世界 亦可思議 其諸衆生 功德善力 住行業地⑦

이는 아무 苦難이 없는 極樂淨土의 說法場에 四天王等の 天衆이 參與 하게 되는 根據를 밝히고 있다.



圖. 五 桐華寺念佛庵 彌陀幀畫

(5) 行者命欲終時 阿彌陀佛及觀世音大勢至 與諸眷屬持金蓮華 化作五百化佛 來迎此人

여기서는 阿彌陀如來와 더불어 觀音 勢至菩薩 등의 極樂聖衆이 往生者를 來迎하는 根據를 밝히고 있다.

以上에서 보면 첫째경우의 阿彌陀後佛幀畫는 (1)과 (2)의 圖說이며 둘째경우는 (1) (2) (3) (4)의 圖說이며 셋째의 경우는 (1) (2) (3) (4) (5)의 圖說이라 할수 있다.

다시 말하면 첫째의 圖說은 補助者인 觀音 勢至菩薩을 대동한 說法의 光景만을 圖說한 것이며 둘째는 說法者와 聽法者를 아울러 圖說하고 있으며 셋째의 圖說은 說法 聽聞圖에 往生의 歡喜인 極樂來迎圖를 아울러 있는 것이다 하겠다.

以上の 後佛幀畫와는 달리 極樂의 모습을 좀더 具體的으로 描寫하고 있는 阿彌陀幀畫는 桐華寺念佛庵後佛幀畫의 例에서 살필수 있다(圖五)

먼저 本圖說의 構圖를 보면 中央에 阿彌陀如來와 左右補處인 觀音勢至菩薩을 圖設하고 있는點은 餘他的 後佛幀畫와 다를바 없으나 以外の 圖說이 보다 具體的이다. 阿彌陀如來의 說法相 下方에 聽聞衆의 菩薩相이 圖說되고 있음도 같은것이라 하겠으나 聽聞衆의 意味를 보다 具體적으로 나타내기 爲해 菩薩像을 前面으로 向하게 한것이 아니라 說法主를 바라보는 座像으로 하고 있음이 特異하다. 그리고 이같은 菩薩像 左右에는 各各 寶樓閣이 그려지고 그안에 阿彌陀 觀音 勢至의 座像과 그上方에 三菩薩像과 地藏菩薩像이 그려지고 있다. 여기 樓閣은 淨土三部經에서 말하고 있는 「衆寶國土……界上有五百億寶樓閣」한 極樂의 樓閣을 描寫한 것이라 할수 있겠으며 그 寶樓閣에 앉은 阿彌陀 觀音 勢至의 像은 極樂來迎圖라 할수 있을것이다. 이를 極樂來迎圖로 믿게 됨은 바로 樓閣밖에 선 地藏菩薩의 圖說에서 쉽게 알수 있게된다⑨. 그리고 聽聞菩薩衆의 下方에는 諸聖聞衆이 圖說되고 그 下方에는 向左로부터 神將 및 天衆像 그리고 諸比丘衆이 圖說되어진다. 上方 阿彌陀如來頭光 左右에는 頭人身鳥의 像이 圖說되는데 이는 「彼國常有種種奇妙 雜色之鳥 白鶴 孔雀 鸚鵡 金翅 迦陵頻伽」⑩의 迦陵頻伽 極樂鳥를 描寫한 것이다.

그 左右에는 瑞雲에 둘러 쌓인 十方諸佛이 圖說되고 있다. 이는 無量壽經의 「十方恒沙諸佛如來 皆共讚歎 無量壽佛功德不可思議 諸有衆生 聞其名號 信心歡喜의 十方諸佛」이 無量壽佛의 威神功德을 讚歎하는 相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問題로 남는것은 無數한 十方諸佛과 無數한 化佛의 關係이다. 阿彌陀幀畫中 化佛을 圖說한것으로는 威鳳寺 彌陀幀畫를 좋은 資料로 삼을수 있을것이다(圖六). 먼저 이 圖說의 構圖를 보면 樓閣안에 앉은 阿彌陀如來 座像을 中心으로 左右에 많은 如來像이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樓閣밖 上方에는 다시 瑞雲에 둘러쌓인 如來像들을 七部分에 그리고 있다. 그리고 다시 本圖說을 上下로 나누어 下에서는 前記 上的 圖說을 좀더 擴大하여 具體적으로 描寫하고 있다. 그런데 이 上下의 圖說은 다시 따로 區分하여 上下 各各의 幀畫를 形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威鳳寺千佛彌陀幀畫는 A·B·C 三點이 있

는데 前述한 圖說이 A라면 B는 A의上 C는 A의 下이며 A는 B를 上段圖說 C를 下段圖說로 構成하고 있다.

本圖說이 彌陀幀畫임을 쉽게 알수 있는것은 圖說 樓閣의 懸板과 柱聯의 글귀에서이다. 即 前記 三點의 圖說은 다음과 같은 懸板과 柱聯을 남기고 있다.

- ① 懸板.. 極樂殿、無量壽閣、彌陀殿、光明殿、普光殿
- ② 柱聯.. 青山壘壘彌陀窟、滄海茫茫寂滅宮、物物拈來無罣碍、幾看松亭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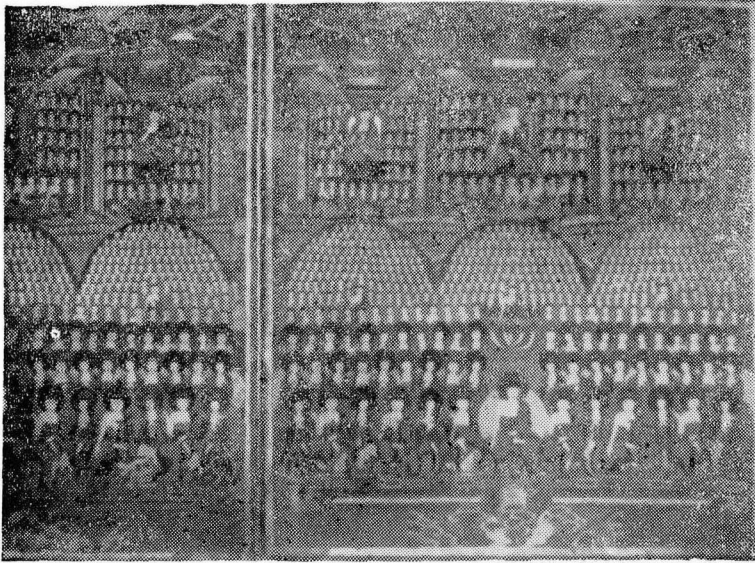


圖. 六 威鳳寺 彌陀幀畫

頭紅、極樂堂前 滿月容、玉毫金色照虛空、若人一念佛名號、頃刻圓成無量功 여기 懸板은 모두 阿彌陀如來의 功德을 나타낸 글귀이며 ① 柱聯의것은 阿彌陀如來 高聲念佛十種功德 을 나타낸 글귀이다②. 그리고 樓閣의 諸如來像이 化佛임을 알게 되는것은 觀無量壽經의 「阿彌陀如來 與觀世音 大勢至 無數化佛：七寶

宮殿 解第一義 是故我分 來迎接汝 與千化佛 一時授手 行者自見」과 無量壽經의 「願生彼國 其人臨終 無量壽佛 化現其身 光明相好 具如直佛 即諸大眾 現其人前 即隨化佛 往生其國」의 化佛로 볼수 있으며 特히 阿彌陀高聲念佛十種功德文中에 前記 柱聯의 文句에 이어 「南無西方淨土極無世界三十六萬億 一十一萬 九千五百 同名同號 大慈大悲 阿彌陀佛 南無西方淨土 極樂世界 佛身長廣 相好無邊 金色光明 遍照法界 四十八願 度脫衆生 不可說 不可說轉 不可說 恒河沙佛刹微塵數 稻麻竹葦 無附極數 三百六十萬億 十一萬 九千五百 同名同號 大慈大悲 我等導師 金色如來 阿彌陀佛하고 南無無見頂上相 阿彌陀佛等 阿彌陀佛의 相好를 列舉하고 있는데서도 確實視 되어진다. 그런데 本彌陀幀畫의 樓閣 바깥 上方瑞雲에 둘러쌓인 諸佛은 阿彌陀如來의 化佛로 보기도하는 十方諸佛이 아닌가 하며 따라서 前述한 桐華寺 阿彌陀幀畫의 十方諸佛도 같은 性格의 것으로 볼수 있을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阿彌陀如來 後佛幀畫를 中心으로 極樂淨土의 圖說을 살펴 왔다. 다음에는 다른 例에서 淨土의 圖說을 살펴 보기로 한다. 첫 째 極樂九品圖를 들수 있다. 本圖說은 極樂殿或은 大雄殿 後面 或은 側面에 懸掛하고 있다. (圖七) 이는 後佛幀畫와는 달리 特別한 例를 除外하고는 禮佛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주로 本圖說은 後佛幀畫가 信仰의 對象으로 그려진데 反하여 教化의 目的에서 그려진것이라 할수 있다 極樂九品圖는 한幅에 아홉그림을 그려넣고 있는데 이 아홉그림이란 上品上生圖、上品中生圖、上品下生圖、中品上生圖、中品中生圖、中品下生圖、下品上生圖、下品中生圖、下品下生圖이다.

九品이란 散心の 凡夫가 往生을 얻는 九種의 方法이고③ 九品圖는 各기 다른 方法에 依하여 往生한 極樂의 다른 모습이다. 無量壽經은 往生人을 上 中 下輩의 三類로 나누고 있는데 即 上輩는 出家하여 諸功德을 닦는者이며 中輩는 右家信徒로 三寶를 供養하는者 下輩는 단지 深法을 닦고 歡喜信樂하는 者를 말한다고 한다④. 이를 다시 말하면 上輩는 出家者의 智德이며 中輩는 右家의 福德 下輩는 聞法의 信德이라 할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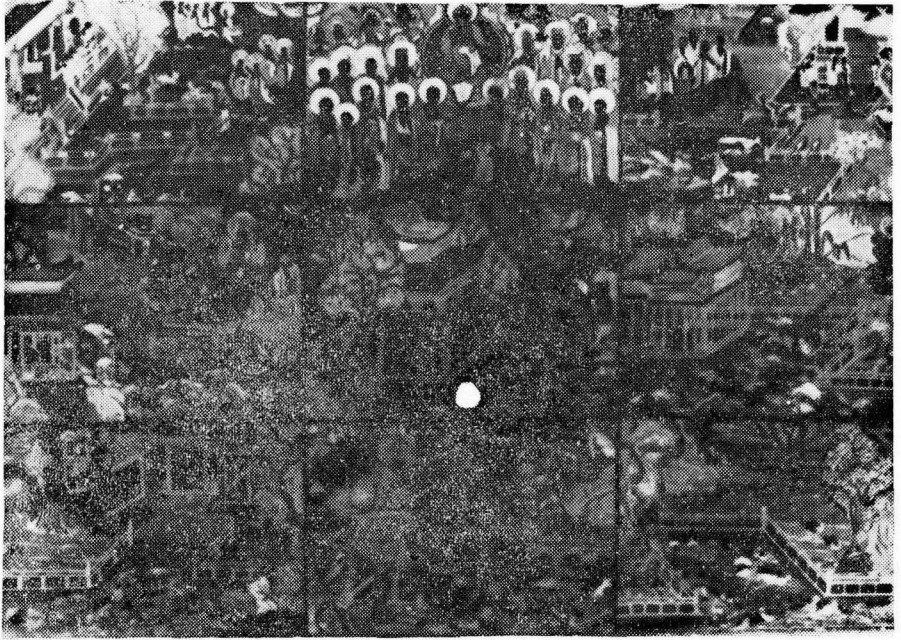


圖. 七 新興寺 極樂九品圖

는데 이같은 修諸功德의 願에 應한 各已 다른類의 樂極을 描寫한 것이 極樂九品圖인 것이다.

다음은 阿彌陀極樂來迎圖를 들 수 있다. 來迎圖는 佛壇에 懸掛되는 것이 아니라 亡者를 極樂에 往生시키기 爲해 說壇 되어진 靈壇에 懸掛한

다. 이와같이 來迎圖가 信仰의인 面에서나 內容의인 面에서 死者儀禮와 관련을 갖는 것은 淨土經典의 「以此功德(念佛)廻向願求生極樂國 行此行者 命欲臨終時 阿彌陀佛 與觀世音 大勢至無量大眾 眷屬圍繞 持紫金臺 至行者前 證言 法子 汝行大乘 解第一義 是故我今 來迎接汝 與千化佛 一時授 手行者自見」 등의 內容에서 緣由 되어진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傳하는 來迎圖를 보면 來迎圖만을 그린 獨立的 來迎圖는 별로 찾아 볼 수 없고 所謂 甘露帳畫이라고 하는 佛畫에서 來迎의 場面을 찾아 볼 수 있다. 甘露帳畫의 構圖를 보면 極樂과 地獄을 對比하여 그리고 있다 (圖八) 即 同佛畫를 上下로 나누어 보면 上方은 極樂來迎圖이고 下方은 地獄圖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來迎圖의 圖說은 大體로 阿彌陀如來가 觀音 勢至菩薩과 더불어 구름 或은 輦을 타고 極樂往生人을 來迎하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는 阿彌陀如來가 보다 많은 菩薩을 대동하는 경우와 또한 阿彌陀 地藏 引路王菩薩로 構成 되어진 것이 있는가 하면 地藏 引路菩薩王만으로 圖說 되어진 來迎圖도 찾아 볼 수 있게 된다¹⁶⁾. 經典에 依하면 來迎의 樣相은 散心の 凡夫가 往生을 因는 九種의 方法(極樂九品)에 따라 달라진다¹⁶⁾. 그런데 阿彌陀如來와 觀音 勢至의 來迎은 거이 必須的이나 다른 菩薩이나 聖衆의 名號는 具體的으로 밝혀놓고 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 現在 來迎圖가 阿彌陀 觀音 勢至 以外에 地藏 引路王菩薩의 來迎을 圖說하고 있음은 死者儀禮의 變化에서 오는 特有的 構圖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四、韓國淨土圖의 內容과 性格

淨土圖는 淨土의 樣相을 圖說한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即 淨土關係의 各經典은 다음과 같이 淨土의 樣相을 叙述하고 있다.

(1)、無量壽經

「彌陀의 淨土는 七寶에 依해 成立된다. 即 寶樹 寶池가 그리하고 講堂 精舍·宮殿樓觀이 모두 그리하다. 그리고 七寶合成의 淨土樹는 特히 清

風時に 五音聲을 내어 微妙의 宮商音 自然히 相和한다고 한다.」 한편 講堂精舍 池水의 德도 寶樹와 같고 그것이 樹林이 七寶의 莊嚴을 地上에 顯示한 것이라면 寶池는 그를 水中에 映徹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池水도 寶樹와 같이 自然의 妙聲인데 이 妙聲은 寶樹의 것 보다 한層法音으로서의 內容을 詳細히 說하고 있다. 以上을 整理하면 無量壽經의 淨土의 樣相은 樹林과 池水를 中心으로 莊嚴되어 있고 그를 貫通하는 妙音으로 그 莊嚴이 極에 達하고 있다.

(2)、阿彌陀經

「極樂國土는 七寶의 池가 있고 八功德의 池水 그중에 充滿한다. 池底에는 純金沙를 깔다. 池의 四邊의 階道는 金銀 瑠璃로 莊嚴된다. 極樂國土에는 七重의 欄楯 七重의 行樹 있고 모두 四寶에 依해 莊嚴된다. 그의 佛國土는 항상 天樂을 연주하고 주야로 曼陀羅華의 비를 내리게 하다 한편 그의 國土에는 白鳩 孔雀 迦陵頻伽 등의 極樂鳥 있어 六時로 和雅의 音을 내는데 그音은 法音의 演暢이다.」

여기서도 極樂의 莊嚴은 池水와 樹林이 中心이 되고 그에서 나오는



圖 八一— 甲寺大雄 殿靈山會上圖

微妙의 音聲이 重要視 되고 있다. 그위에 天音樂과 極樂鳥의 雅音을 첨가하고 있음이 다르다.

(3)、觀無量壽經

여기서는 마음을 統一하여 淨土를 觀想하는 方法과 散心의 凡夫가往生을 얻는 方法을 說하고 그에 따라 往生하는 各各의 淨土의 光景을 描寫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寶樹 寶池 精舍 講堂 樣閣 등과 天音樂 寶樹 寶池를 통하여 나는 微音聲은 共通的인 것으로 登場한다.

以上에서 보면 極樂淨土는 西方에 있고 樹林 池水 講堂 精舍 등이 七寶로 合成 되어 있으며 한편 樹林 池水는 淸風時에 自然히 微妙의 音聲을 내고 天音樂 極樂鳥의 和雅音 등으로 정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圖 八一— 靈山會上幀畫

보면 極樂淨土의 아름다움은 繪畫의 音樂的 觀念을 同時에 갖고 敘述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나 極樂의 아름다움이 樹林과 池水 講堂 精舍 七寶合成 등이 必須의 이나 하는 데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여기서 이에 對한 論議는 例外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것이 淨土 諸經典成立 당시 信仰的 理想으로 생각되어졌던 것임에는 틀림없는 事實이었을 것이다.

以上的 經典에 나타난 極樂淨土를 보면 本願成就의 世界이다¹⁸. 그러므로 極樂의 莊嚴功德은 願心의 象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淨土는 阿彌如來의 本願을 들음에 依하여 感知 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經典에 敘述된 極樂淨土가 象徴의 인 것이라는데 淨土의 觀念이 달라짐에 따라 淨土圖의 圖說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韓國淨土圖의 內容과 性格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問題가 되는 것이다.

前述한 韓國淨土圖의 例에서 보면 後佛幀畫 九品圖 來迎圖 등이 大宗을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阿彌陀後佛幀畫가 거의 大部分이다. 그리고 同後佛幀畫의 構圖를 보면 몇몇 特殊한 것을 除하고는 靈山會相幀畫(釋迦說法光景)와 거의 같다(圖九).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如來像의 印象이 阿彌陀如來이고 左右補座像이 靈山會相幀畫의 文殊 普賢에서 觀音 勢至로 바뀌었을 따름이다. 四大菩薩 八大菩薩 四天王 弟子像 등은 그 相好나 配置를 같이 하고 있다. 多幸히 泉隱寺 極樂殿의 阿彌陀後佛幀畫의 各菩薩像의 名稱이 記錄되어 있어 살펴 보았는데 左右補座인 觀音 勢至 以外的 여섯菩薩은 文殊 普賢 金剛藏 除障礙 彌勒 地藏菩薩이었다. 이는 靈山會相의 경우에도 이 같은 八大菩薩을 圖說한다.

그러면 靈山會相幀畫 阿彌陀後佛幀畫의 性格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前述한대로 阿彌陀後佛幀畫는 西方極樂淨土에서의 阿彌陀如來 說法圖이다. 그렇다면 이는 阿彌陀會相圖라 할 수 있다. 여기 說法主인 阿彌陀如來는 阿彌陀經의 「有世界名曰 極樂 其土有佛號阿彌陀 今現在說法」의 阿彌陀이며 左右補座 觀音 勢至는 觀無量壽經의 「無量壽佛住立空中 觀世音大勢至是二大士 侍立左右 光明熾盛 不可具見」의 觀音 勢至이며 諸菩薩

像 佛弟子像은 阿彌陀經의 「彼佛有無量無邊聲聞弟子 皆阿羅漢 非是算數之所能知 諸菩薩衆 亦復如是」의 聲聞弟子 菩薩衆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四天王 등의 諸天衆은 無量壽經의 「無須彌山 其四天王及忉利天 依何而住 佛語阿難 第三欲天 乃至色究竟天 皆依何住 阿難白佛 行業果報 不可思議 佛語阿難 行業果報 不可思議 諸佛世界」의 四天王 등의 諸天衆일 것이다. 結局 이는 阿彌陀가 弘誓를 發하여 願을 세우고 그 願에 依한 修行으로 莊嚴된 淨土의 諸衆이다¹⁹. 이 佛國土의 菩薩은 無量의 德行을 積植하고 聲聞은 無數하여 此世에 出現할 菩薩이 無數함을 나타내고 四天王 등의 天衆도 護法善神으로서가 아니라 그 行業의 果報가 不可思議한 것이다.

以上과 같이 釋迦如來의 靈山會上圖와 阿彌陀如來의 彌陀會上이 說法圖로서는 같은 性格을 지니나 說法會上의 會衆은 觀念上 차이를 지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極樂淨土의 觀念이 淨土教 受容에 있어 地域에 따라 또는 時代에 따라 信仰的 觀念의 變化的으로 무엇과 結合하느냐에 依하여 圖說의 變化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例컨대 中國의 淨土教는 道教的 觀念과 結合함에 依하여 大衆化 되어지고 無量壽佛이란 名稱이 愛用되어진 점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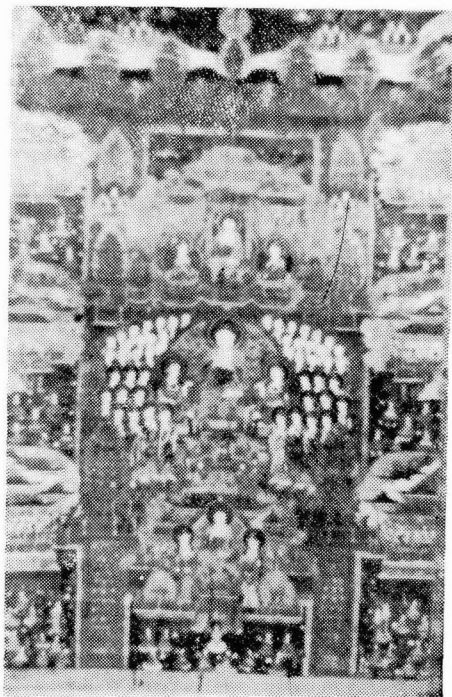
그런데 阿彌陀後佛幀畫가 釋迦後佛幀畫(靈山會上圖)가 거의 같은 構圖를 지니는 것은 兩幀畫가 說法圖란 共通性을 지니는데서 緣由 되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極樂世界는 阿彌陀如來 願의 成就의 世界이나 그 願은 彌陀에 依하여 세워지고 그 成就是 釋迦에 依해 顯現되어진다는 即 成就是 本願에 依해 成立하고 本願은 成就에 依해 領會되어진다는 關係에 있어 兩者의 對應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⁰.

그러나 이와 같은 極樂淨土에 있어 阿彌陀의 說法圖로서의 觀念이 보다 極樂淨土에 對한 審美感和 信仰心이 더해 갈 때 說法圖에 變化를 가져온다. 河東雙溪寺의 阿彌陀幀畫와 桐華寺念佛庵의 阿彌陀幀畫가 그 좋은 例의 하나이나. 雙溪寺의 것은 一般說法圖로서의 阿彌陀圖에 圖說

上方에 極樂來迎圖를 圖說하고 下方에는 聲聞衆을 圖說하고 있다. 한편 念佛庵의 것은 더욱 具體的인 極樂의 光景을 描寫하고 있다. 卽本圖說은 說法圖로서의 基本構圖는 같이 하고 있으나 前述한 極樂의 光景인 寶樓閣 極樂鳥 十方諸佛無數한 聲聞衆을 圖說하고 있음이 特異하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淨土에 對한 어떤 信仰이 強調 되어지느냐에 따라 極樂圖는 分化 되어진다.

卽 死後의 極樂往生 信仰이 強調 되어짐으로서 極樂來迎圖가 그러지고 十方諸佛에 對한 信仰이 強調 될때 十方諸佛圖를 그린다. 여기 前者는 各寺院 靈壇에 많이 懸掛되고 있는 甘露幀畫의 來迎圖이고 後者는 威鳳寺의 彌陀幀畫(千佛幀畫)가 그 좋은 例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十方諸佛에 對한 信仰은 阿彌陀에 對한 信仰이 強調되는 한 形態인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諸佛稱揚에 對한 信仰이며 諸佛稱揚은 阿彌陀의 名聲인 때문이다. 卽 十方諸佛이 彌陀를 稱揚 한다는 것은 彌陀 壽命無量의 德에 依한 것이다②).

다음으로 極樂九品圖를 보자. 이는 現存하는 例에서 보면 禮拜의 對象으로서 보다 審美的 意味를 지닌 教化圖이다.



圖九. 日本 知思院所藏 觀經十六觀變相圖

本圖說은 極樂往生의 願을 세우고 極樂을 觀하는 修行을 行하여 얻어지는 修行의 內容과 程度에 따른 觀經變相圖이다. 觀經變相圖로 가장 오래된 것은 現日本知恩院所藏의 觀經十六觀變相圖를 들 수 있을 것이다 (圖一〇). 이 十六觀變相圖는 觀無量壽經의 心統一하여 淨土를 觀想하는 十三種의 方法에 依하여 얻어진 十三의 極樂과 散心의 凡夫가 往生을 얻는 三觀의 方法에 依하여 얻는 極樂의 圖說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李朝後期作으로 韓國寺院에 傳하는 極樂九品圖는 後者인 三種의 方法에 依하여 觀想한 極樂의 變相圖인 것이다. 三種의 方法은 上中下品을 말하나 이 上中下品이 다시 上上上中 上下中中 中中下下 上下中下 下品으로 나누어져 九品の 圖稅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高麗時代에 圖說 되어진 十六觀變相圖가 朝鮮朝에 와서 散心의 三觀에 依한 九品圖만 圖說 되어졌다는 것은 淨土信仰이 높은 機根의 層에서 發達하지 못하고 一般 庶民大衆에 依해서만 發展한데 起因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五、結 論

以上에서 論述한 韓國淨土圖는 極히 制限된 朝鮮後期資料에 依한 것이었으나 대체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 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 阿彌陀後佛幀畫로 通稱되고 있는 極樂淨土에서의 阿彌陀如來說法圖

둘째 審美的 敎化的 意味를 지니는 極樂의 圖說, 卽 極樂九品圖 極樂來迎圖等이다. 前記二類型의 圖說을 얼핏보면 같은 性格의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여기에는 큰 差異가 있다고 본다. 卽 前者인 說法圖가 釋迦如來의 說法圖인 靈山會上圖와 같은 構圖를 지니게 된은 韓國淨土敎의 敎學的 性格이 自性彌陀의 方向을 指向함에 依하여 倫理的 性格을 強하게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後者의 경우에는 敎學思想的 意味보다는 淨土敎의 他力信仰의 意味가 強調되어 主로 一般庶民大



圖一〇. 異形彌陀幀畫

衆에게 迎合되어지는 審美的 情의 性格을 지니는 圖說을 發展 시킨 것이 아닌가 한다. 卽 이는 苦에 對한 解脫의 意味보다는 苦에 對한 樂土의 希求가 強調 되어진 圖說이라 할수 있을것이다. 이같은 圖說의 傾向은 前者인 說法圖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卽 雙溪寺의 說法圖나 桐華寺 念佛庵의 說法圖는 說法圖의 基本構圖에 淨土敎의 情의 信仰의 性格이 強해 지는 傾向을 찾아 볼수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韓國淨土圖의 두 경향은 韓國淨土敎의 發展傾向을 잘 反

影하고 있는것 같아 무척 興味를 끌게 한다.

卽 歷史的으로 살핀 韓國의 淨土敎는 敎學思想面에서는 自性彌陀의 傾向을 따르고 있으나 信仰的인 面에서는 諸敎學思想을 莫論하고 淨土敎의 他力信仰의 傾向이 크게 發展하고 있었던 面이 淨土圖說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끝으로 첨언하고 싶은것은 앞으로 새로운 資料가 나타나면 이와같은 主張은 바뀌어질것으로 생각되나 과문한 탓인지 아직 그와같은 資料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江湖 諸賢의 많은 敎示를 바라 맞이 않는다

註

- ① 趙明基著 新羅佛敎의 理念과 歷史
- ② 李鍾益著 普照國師의 研究 西山大師 禪家龜鑑 參照
- ③ 前揭註 參照
- ④ 淨土三部經의 本阿彌陀經 岩波文庫
- ⑤ 觀無量壽經 岩波文庫 淨土三部經
- ⑥ 無量壽經 岩波文庫 淨土三部經
- ⑦ 無量壽經 岩波文庫 淨土三部經
- ⑧ 觀無量壽經 岩波文庫 淨土三部經
- ⑨ 拙稿 下壇(露壇)幀畫 文化財十一號 文化財管理局
- ⑩ 阿彌陀經 岩波文庫 淨土三部經
- ⑪ 無量壽經 彌陀成佛의 諸相
- ⑫ 阿彌陀高聲念佛十種功德文에 나오는 文句이다. 釋門儀範參照
- ⑬ 觀無量壽經 岩波文庫 淨土三部經
- ⑭ 金子大榮 大無量壽經의 概要
- ⑮ 拙稿 下壇幀畫 文化財十一號 文化財管理局
- ⑯ 觀無量壽經은 極樂來迎의 樣相을 各已 다르게 叙述하고 있다.
- ⑰ 前揭註 參照
- ⑱ 金子大榮 大無量壽經의 概要
- ⑲ 無量壽經 岩波文庫 淨土三部經
- ⑳ 前揭註 參照
- ㉑ 前揭註 參照

(文化財專門委員)